

건축의 아름다움과 공간의 미학

전문서 · 실용서 위주서 벗어나 기행 · 에세이 · 이론서 등 다양

건축의 아름다움을 인문적 교양과 철학적 성찰의 언어로 담아낸 책자들의 출간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 출간된 건축서적들은 건축학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이고 난해한 이론서나 실무자들을 위한 실용도서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1, 2년 사이에 건축기행부터 건축에세이, 건축미학, 건축사 등에 이르기까지 건축의 미학적 측면과 대중성을 동시에 배려하는 책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살림출판사의 김진희 기획실장은 건축도서들의 출간이 활발한 이유를 7, 80년대의 하드웨어적 문화의 한계에서 찾는다. 성장위주의 문화에 대한 반성이 소프트웨어 문화의 개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건축을 보편적인 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건축가들의 문제의식이 90년대적인 문화상황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문명의 현상으로 떠나는 건축기행

문명의 빛과 그림자를 찾아 떠나는 건축기행서들이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건축가 김석철씨는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해냄)과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창작과비평사)을 출간해 건축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은 성경의 도시 예루살렘, 천년 동안 세계문명의 중심이었던 이스탄불, 극락정도의 형이상학적 도시 경주 등 문명과 자연, 생활과 예술이 어우러진 천년의 도시와 건축으로 안내한다. 이 책의 후속편이자 본격적인 건축기행이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이다. 저자는 세계의 위대한 건축물을 '죽음의 공간', '신의 공간', '삶의 공간', '인간의 공간' 등으로 나누어 답사한다. 건축과 도시를 보편의 영역으로 파악하면서 정밀한 공학구조물에서 인문적 정신을 읽어낸다.

기자의 피라미드와 지하의 무덤도시 카타콤베, 위대한 사랑의 시적 공간인 타지마할 등은 '죽음의 공간'으로서 죽음이 삶의 다른 한 형식임을 깨우쳐준다. '신의 공간'인 아크로폴리스, 판테온, 성 바실리 사원 등은 영원한 현재를 믿었던 인간이 새로 찾은 신의 공간이다. '삶의 공간'은 현대도시의 원형공간인 로마의 포로 로마노와 천년도시

건축의 아름다움을 인문적

교양과 철학적 성찰의 언어로

담아낸 책들의 출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제까지

건축관련서가 난해한 이론서나

실무자를 위한 실용서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책들은

건축의 미학적 측면과

대중성을 동시에 배려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카이로의 중앙시장 알 할릴리 등을 살펴본다. '인간의 공간'에서는 사유의 공간형식인 거주공간으로서 나폴리의 메가리데성, 모스크바의 크렘린, 산 지미냐노 등을 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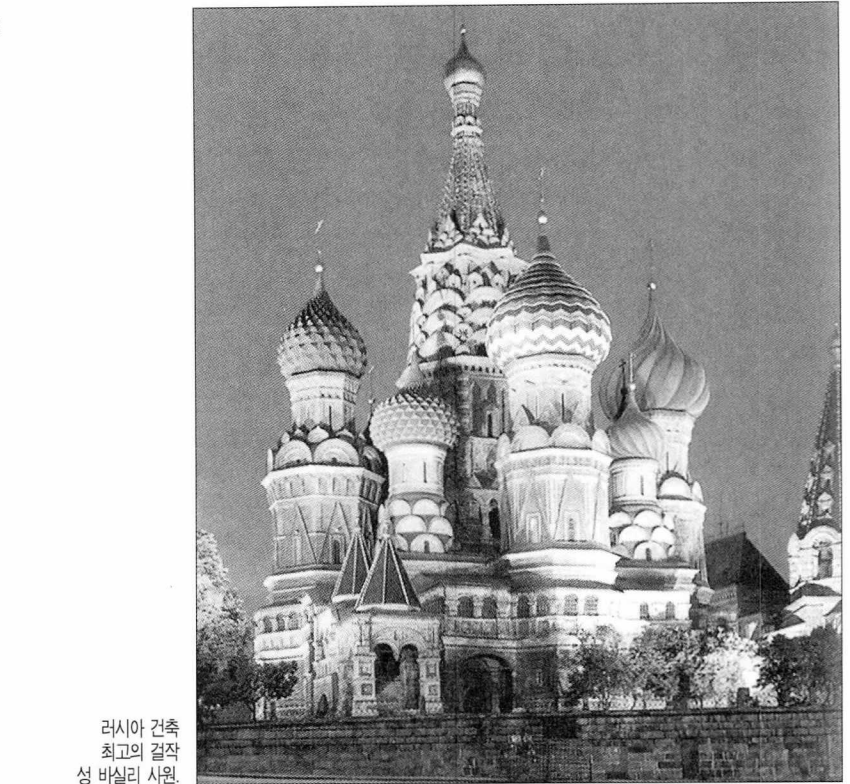
김석철의 건축기행이 건축과 도시문명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두드러진다면, 건축가 원대연의 《건축가 원대연의 여행담어서기 1~3》은 시각적인 화려함에 강조를 두었다. 컬러 사진과 도면에 세계 곳곳의 명소들을 담아 실질적인 여행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공간인생 담은 에세이들

건축기행이 세계적인 건축물과 도시에서 느끼는 문명과 공간에 대한 사색의 결실이라면, 건축가 자신의 건축관과 인생관, 세계관 등을 담담한 수필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건축 에세이도 나왔다.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은 수록 좋다》(공간사)는 한국의 1세대 건축가인 김수근의 공간인생론이다. "건축가는 청사진 속에 그려져야 할 것을 생각해내는 사람이다" 등 원로 건축가의 건축과 공간, 삶과 역사와 인간에 대한 번뜩이는 성찰들이 담겨 있다.

동양적인 기철학의 관점을 시적인 문체로 담은 《건축가 김기석 집이야기 전집1~4》(살림)에는 저자의 '유기체 건축관'이 녹아 있다. 건축이란 인간이 거주하는 기계적인 장치가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의 심성, 주변환경이 끼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



러시아 건축 최고의 걸작 성 바실리 사원

로 배려된 생명의 집합체라는 것이다.

건축가이자 문명·문화비평가인 윤승중의 《건축되는 도시, 도시같은 건축》은 철학적인 단상의 성격이 강한 글들을 모았다. 저자는 건축이 사회현상을 집약하고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는 사회예술이라고 제시한다. 건축은 총체적인 예술 내지는 인간생활 전반으로 확대·이해되어야 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건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건축 에세이들은 건축가들이 인생과 사회, 그리고 철학에 대해 깊이 통찰하는 종합적인 예술가들임을 확인시켜 준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주도한 지식인들이 건축가들이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축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

건축의 미학을 탐색하는 이론서들도 꾸준히 출간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지오 폰티의 《건축예찬》(열화당)은 건축이론서의 고전이다. 이 책은 저자의 건축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한 열광적인 서사시이자 건축에 대한 열변이다. "건축은 불멸의 영속성을 요구한다. 건축은 지속하며, 미래를 창조한다. 건축가는 지금의 우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건축한다."와 같은 잠언적인 글들로 인문적 예술가의 사명을 표현하고 있다.

지오 폰티의 저작과 마찬가지로 건축에 대한 주관적인 철학을 간결하게 담은 것이 건축가 승효상의 《빈자의 미학》(미건사)이다. 제목처럼 저자의 건축철학은 '빈자의 미

학'으로 요약된다. 이는 가집보다 쓰임이 더 중요하고, 더함보다는 나눔이 더 중요하며, 채움보다는 비움이 더 중요하다는 미학적 태도를 말한다.

건축연구사의 최신 연구도 번역 출간되었다. 영국의 미술사학자이자 건축사가인 데이비드 와트킨의 《건축사학사》(시공사)는 17세기에서 현재까지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미국의 건축사 연구를 개관했다. 저자는 건축사의 서술을 자극하는 다양한 동기들을 사회적인 연관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즉, 17세기와 18세기의 중세건축 연구는 특정한 종교적인 이념의 추진과 밀접하게 연관되었고, 19세기에는 민족주의의 대두와 연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최근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는 건축도서들은 우리의 문화적인 인프라를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문화에 대한 독자적 지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아직까지 필자층이 명망가 위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동서양의 건축을 비교·연구하는 깊이 있는 이론서들이 적은 실정이다. 김석철 아키반 건축사무소 대표는 건축인이 사회적인 실천을 수행하는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식인은 미래를 감지하는 능력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실과 감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일상의 대화 속에서 도시와 자연, 건축과 미학을 함께 말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 박천홍 기자